

광주 국회의원 8명, 군공항이전 ‘의기투합’

NEWS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개정안 공동발의... 종전·이전지·이주자 지원 답아

주호영·백해련 의원도 힘보태... 시너지 효과 기대

광주 국회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안도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 (시장 강기정) 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만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 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

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특히 개정안 발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해련 의원 (경기 수원을) 등 지역구에서 비슷한 현안을 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입법 과정의 조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국회의원 8인은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갑) 명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 서 큰 이견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의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 외에도 한준호, 박희승, 한민수, 서영교, 허영, 박지원, 김현정, 주호영, 백해련 의원까지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청 야외웨딩 9쌍 예약

합리적 비용·MZ 감성 저격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이 ‘나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광주시청 ‘빛의 정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 예약이 총 9건 (4월 2

쌍, 5월 2쌍, 9월 5쌍) 접수됐다. 야외결혼식이 주목받는 것은 고물가시대에 합리적 비용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고,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엠제트 (MZ) 세대의 욕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외결혼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는 “시청 야외광장 등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야외결혼식 장소로 손색이 없고 하루에 한 팀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특별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빛의 정원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면 이용할 수 있다. 예식장 이용은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만 가능하며,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식 6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613-2881)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 (www.esshare.go.kr) 에서 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식품기업 3개사 투자협약 체결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8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후김이). (우) 남도식품, (우) 지웰리브 등 3개 기업과 4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4곳 선정

진도·영암·장성·해남...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보강

전남도는 2025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서 진도군,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등 20년 이상 노후 관광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관광학과 교수 등 외부 관광 전문가 3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노후시설 개보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설치 및 콘텐츠 보강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진도군 아리랑마을 관광

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가 선정됐다. 개소당 12억원씩 총 48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조명 등 인위적 시설물은 지양하고,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콘텐츠를 보강해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길도록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노후 관광지에 3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의시설 개선 등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김영록 도지사, 조기대선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위해 헌신... 이재명 대표와 동행”

대권 접고 ‘민주개혁 세력 승리 헌신’... 사실상李 지지 지방선거 도지사 3선 도전... “전국적 지지세 한계 인식”

‘호남주자론’을 내세우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정권이 교체돼야 내란종식도 가능하고 국민통합의 길도 열린다”면서 “이러한 시대정신의 최종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혼란 속에서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미래세대

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며,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경고하셨던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평화의 위기가 대한민국 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들어 놓고 있어 이러한 위기를 지금 당장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초 김 지사가 대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불출마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민주당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답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하며 단체장 자리를 내주면서 텃밭 수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져 분열보다는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벗어나 진보 세력의 대세론에 힘이 실리면서 호남주자의 대선 출마보다는 호남의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결단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대선 지지율에서 여타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컷오프 가능성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남은 현재 국립의과대학 신설, 광주공항 이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등 현안이 많아 김 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지사가 대선에 불출마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권교체가 이뤄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경우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남도장터,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 추진

전남도는 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관리·운영하는 2025년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은 광역자치체를 기반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입점·판매·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

로, 전국 9개 광역자치체 쇼핑물 중 ‘남도장터’를 포함 4개 지자체 쇼핑물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전남도 농특산물과 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110개사를 선정하고, 전용관을 개설함과 동시에 최대 40%를 할인해 남도장터 쇼핑물 이용고객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도에서 개최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해 대형 유통망 MD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 등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도 접목해 판매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중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광주버스 방송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론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메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HOTEL 아트하임 (구·백문리(백문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